

6/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남상욱



남상욱(南相旭) 경희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후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비교문학비교문화 과정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三島由紀夫における「アメリカ」」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대학에 출강 중이다. 역서로는 『미시마 유키오의 문화방위론』이 있으며, 일본에서의 ‘전후’라는 문제의식 하에 쓰인 논문을 학술지 및 문예지에 발표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정치와 미의 결합

『아름다운 나라로』¹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임기 만료에 즈음해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의 일환으로 발표한 책으로, 당시 50만 부가 팔릴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정치가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을 일반인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최근 한국에서도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 정치의 관례상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에서 아베는 현대 일본의 정치체제가 점령 시 연합국 최고사령부 총사령부(GHQ, 이하 GHQ)에 의해 기안된 일본국 헌법의 자장 속에 머물러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고 이로부터의 적극적인 탈각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치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피력을 기피하던 기존의 일본 정치가들을 ‘비겁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많은 기대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은 아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함으로써 1년도 지나지 않아 막을 내리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이 책은 금방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듯했다. 만약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2012년 아베가 다시 자민당 총재로 취임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 새삼스럽게 이 책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26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다시 총리대신이 된 아베는, 2013년 1월에 곧바로 2006년판 『아름다운 나라로』에 약간의 보론을 추가해 『새로운 나라로—아름다운 나라로 완전판』²을 출간한다. 이 시점에서 이 텍스트는 새롭게 주목받게 된다.

실제로 이 텍스트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아베 신조의 편향된 정치적 이념과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사가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는, 위 텍스트를 근거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로 삼는 아베 신조가 이끄는 현재의 자민당 정권을

1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文春新書, 2006.

2 安倍晋三,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 完全版』, 文春新書, 2013.

‘극우세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해 통렬한 비판을 전개한 바 있다.³ 이와 호응하는 형태로 한국에서는 이 책에 언급된 식민주의에 대한 역사 인식을 근거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곤 한다.⁴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베를 ‘극우’로 보는 입장을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그건 아베가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우익 반동’이 아니라 ‘열린 보수주의자’로⁵ 밝히고 있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마쓰모토 겐이치(松本健一)는 “전전, 전후를 통틀어 근대 일본에서 권력을 장악해 온 것은 우익과 좌익도” 아닌 ‘리버럴’이었으며, 그들이 “좌우 양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하며, “원래 자유주의자를 뜻하는 리버럴이 일본에서는 보수주의자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이러한 마쓰모토의 견해를 따른다면 한국에서 일컬어지는 이른바 ‘일본의 우경화’는, 보수주의 정치가 좌파적 정치 이념과 거리를 두고, 우파적 정치 이념을 자신의 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⁷ 좌파적 관점에서 일면적으로 아베 정권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그 경우 그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의 정치 감각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즉, 장인성이 지적한 바 있듯이 한 정치가에게 ‘극우’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후체제와 제도 속에서 생산된 일상의 보수적 감각’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⁸

실제로 『아름다운 나라로』가 그저 아베 신조라는 정치가의 역사인식을

3 사카이 나오키, 「제국의 상실: 극우 정권 하의 일본」, 『말과 활』, 일곱 번째 숲, 2013년 7~8월, 291~293쪽.

4 김준섭, 「아베 총리의 ‘아름다운 나라」, 『국민일보』, 2013년 5월 6일, 26면; 이병한, 「반미주의자 아베 신조, 제국을 꿈꾸다」, 『프레시안』, 2013년 2월 4일 기사 입력.

5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18쪽.

6 마쓰모토 겐이치, 요시카와 나기 옮김, 『일본 우익사상의 기원과 종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년, 45~46쪽.

7 실제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아베는 GHQ에 의해 기안된 일본국 헌법의 장력 속에서 성립된 ‘전후 레짐’의 뒤틀림을 남북자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평화국가’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호헌을 주장하는 좌파 정치를 상대화하고, 패전 굴욕의 증거물로서 ‘일본국 헌법’의 개헌을 주장하는 우파를 끌어안고 있다.

8 장인성,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년, 261쪽.

입증하는 증거로서만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책의 키워드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정치에 미를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예 논의의 수면 위로 떠오를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는 세기 전환기의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 영역 속에 ‘미’를 도입한 것이 아베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1998년 출간된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전쟁론』⁹과 2005년 출간된 후지와라 마사히코(藤原正彦)의 『국가의 품격』¹⁰은 모두 서구의 ‘소비중심주의’나 ‘논리중심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무사도정신’이나 ‘자연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 같은 자국의 미의식을 그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로』는 이러한 담론의 자장 속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치인의 언어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과 정치조직, 연구회를 통해서 다성적으로 만들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언어가 측근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조차 있다. 정치가의 언어는 유권자들의 감각을 대리 또는 표상하거나, 적어도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성립된다는 점을 의식한다면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발화되고 있는 언어들은 2000년대 중반 일본인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조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름다운 나라로』는 현대 일본의 정치적 영역의 문제를 서구적 논리 대신 일본적 전통적 미의식의 관점에서 풀어가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에 대한 정치가의 본격적인 응답의 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아베가 책의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일본은 아름다운 자연의 은혜를 입고, 긴 역사와 독자의 문화를 가진 나라다. 그리고 아직 큰 가능성이 숨어 있다. 이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9 小林よしのり, 『戦争論』, 幻冬舎, 1998.

10 藤原正彦, 『国家の品格』, 新潮社, 2005.

우리들의 용기와 영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을 비하하기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맘을 흘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의 결점을 말하는 데에 삶의 보람을 찾지 말고, 일본의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¹¹

일본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모두 ‘미’로 표상함과 동시에, 이러한 미의식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정치적 움직임을 “일본인을 비하”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인식은 결코 아베의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치가로서의 아베가 이러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리=표상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적이다. 그렇다면 아베는 자신의 텍스트 속에서 일본의 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논문은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에 드러나는 ‘미’를 동시대적 언설과의 관계성보다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라는 급진적인 작가의 정치 미학과의 대비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정치인의 언어를 문학자의 언어와 결부시키는 이러한 시도는 일견 매우 자의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자의적’인 시도가 일본과 한국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익 비평가인 오가와 에이타로(小川栄太郎)는 『약속의 날』에서 아베를 ‘일본을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걱정하며 일본의 내일에 본래의 아름다운 건강함을 되돌리기를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희망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미시마 유키오의 연장선에 위치시키고 있고,¹² 한국에서도 아베를 미시마로 대표되는 전후 ‘극우주의’의 계보 속에서 파악하는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¹³ 전자가 아베를 영웅시하기 위해서라면, 후자는 아베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시마

11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228쪽.

12 小川栄太郎, 『約束の日』, 幻冬舎, 2012. 전자책 Loc 2551~2562/2872.

13 김윤형, 「군부의 폭주에서 야스쿠니 신사 공동체로」, 『한겨레』, 2012. 8. 10; 이종훈, 「위기와 극우」, 『동아일보』, 2013. 5. 27; 신보영, 「日 우익 줄잇는 망언, 대이은 정치세습 탓」, 『문화일보』, 2013. 8. 5.

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베와 미시마가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는 똑같이 일본사회 문제의 원인을 ‘전후 체제의 뒤틀림’과 그것을 유지시키는 일본국 헌법에서 찾았고, 헌법 9조를 개헌해 현재 일본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꿈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미’의 회복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도 양자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즉, 그들은 전후체제 하에서 ‘무(武)’를 ‘미(美)’로 보는 전통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전제하고, 이를 되찾아야 될 대상으로 간주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정치적 행위가 전후 형성된 동아시아 역사 인식과 문화 교류에 그늘을 드리운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문제가 발견된다.

하지만 미시마와 아베의 차이 역시 분명하다. 먼저 그들의 정치적 삶과 활동 무대가 다르다. 미시마는 1970년 11월 25일 자신의 사병조직 ‘방패회’(盾の会) 멤버들과 함께 자위대 본부로 찾아가 ‘절대천황제’의 부활을 위한 쿠데타를 선동하고 실패로 끝나자 할복했지만, 아베는 현실 정치의 중앙 관료로 활약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차이는 미와 정치에 내포된 양자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될 것이다. 전쟁을 경험한 미시마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와 아베가 대변하고자 하는 2000년대 일본인의 ‘미의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시마야말로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전후 일본의 ‘보수 감각’ 속에서 미의식의 윤곽을 드러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한 참조축이 될 수 있겠다.

2. 전후 세대의 눈에 비친 ‘일본이 빛났던 때’:

1964년 도쿄 올림픽

『아름다운 나라로』 속에서 아베 신조가 상정하는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눈을 끄는 것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회상하는 다음 장면일 것이다.

패전으로부터 19년. 우리나라는 폐허로부터 출발해 마침내 올림픽을 주최할 수 있을 만큼 부흥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사람들이 일본에 모이고, 일본인 선수가 그 앞에서 속 시원한 활약을 보인다—패전의 울분과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강한 정신력으로 살아남아 온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랑스럽고, 찬란한 때였음이 틀림없다.

1950년대 태어난 우리들 세대에게는 그러한 고난의 기억은 없다. 단지, 철들 때부터 이때까지 우리들은 세계에서 일본이 아직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세계를 향해 그 존재를 이렇게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선하게 생각했고 놀라워했다. 어린 마음에도 자랑스러운 기분을 가진, 최초의 체험이었다.¹⁴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64년의 일본을 ‘찬란했을 때’로 보는 아베의 인식은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아베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인들에게 도쿄 올림픽은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 거의 모든 일본인들에게 ‘마침내 일본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라든지 혹은 ‘하면 된다. 일본도 열심히 하면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공유시킴으로써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형성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을 존중하는 포즈를 취함으로써 1964년의 일본을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의 원형의 이미지로 삼는 데 성공한다. 실제로 아베는 ‘꿈이여, 다시 한 번’이라는 표어 하에 추진되었던 2020년 하계 올림픽 도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성공한다.

하지만 근대사에서 일본이 빛났던 시절로서 주로 주목받아 온 것은 메이지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후의 일정 시기를 ‘찬란했던 시절’로 환기하는 아베의 관점은 문제적이다. 무엇보다도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대

14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77~78쪽.

한 긍정은 그가 탈각하고자 하는 ‘전후 레짐’을 긍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이러한 아베의 정치 언어를 비판하는 데 사카이나오키의 말만큼 참조가 될 만한 것은 없겠다. 즉, 사카이에 의하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황혼을 맞이하고 있다”는 현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채, “A급 전범이 주축이 되어 미국을 뒷배경으로 삼아 ‘전범 보수’가 호시절을 누린 당시의 국제 상황이 마치 오늘날 계속되기라도 하는 듯 행동”하고 있는 아베의 행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황혼 앞에서 탈식민화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대신 과거의 위안으로 가득 찬 노스텔지어 속에 틀어박히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⁵ 즉, 패전 후 거의 괴사 상태에 빠졌던 일본 경제의 회복은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본격화됨으로 인해 시행된 미국의 ‘봉쇄정책’의 수혜 때문인데, 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전후에도 동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유일한 ‘근대화된 나라’라는 우월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사카이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카이의 비판을 통해 정치인 아베의 언어를 상대화하기는 쉽지만, 1964년 도쿄 올림픽으로부터 현대 일본 국민이 받는 위안과 노스텔지어를 설명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위의 아베의 말을, 일본인들에게 도쿄 올림픽은 어떠한 경험이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해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아베의 회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경험에 세대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전에 태어나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세대에게 도쿄 올림픽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역경 속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을 국제 사회에 증명할 수 있으므로 “자랑스러웠고 찬란”했지만, 1954년생으로 당시 소학교 4학년생이었던 아베에게 도쿄 올림픽은 일본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작은 나라” 일본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으므로 “자랑스러운 기분을 가진, 최초의 체험”으로

15 사카이나오키, 「제국의 상실: 극우 정권 하의 일본」, 295~296쪽.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소년의 인식에는 1925년생으로 만 스무 살에 패전을 맞이한 미시마에게 보이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장기나 기미가요에 대해서 지난 전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는 감정적 논의가 있었죠. 국기 중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국기는 없지 않을까요? 올림픽에 꼭 늘어선 국기 중에서 그런 처녀나 동정 같은 깃발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제 막 생긴 국가는 별개로 치구요. 지금까지 일장기는 순결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다음에는 일장기는 더러워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일장기는 더러워졌어도 다시 더 깨끗해졌다고 하는 내셔널리즘이 나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증법적 내셔널리즘이 나온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¹⁶

아베와는 달리 전쟁을 경험한 미시마 이상의 세대에게 일본국을 표상하는 국기나 국가는 이미 그 순결함을 상실했다는 인식이 있다. 즉,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부정적 측면의 극한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일본’에 대한 인식은 도쿄 올림픽을 매개로 “일장기는 더러워졌어도 다시 더 깨끗해졌다”고 하는 식의 새로운 논리의 개발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미시마에게 도쿄 올림픽은 ‘일장기는 더러워졌다’는 입장도, ‘일장기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모두 지양(止揚)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증법적 내셔널리즘”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과거의 ‘더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을 긍정하고자 하는 미시마와는 달리, 아베는 일장기도 기미가요도 모두 ‘군국주의의 상징’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관한 ‘아름다운 일본’의 표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런 아베에게 1964년 도쿄 올림픽은

16 大宅壮一·司馬遼太郎·三島由紀夫, 「(座談会)雑談, 世相整理学(最終回)―敗者復活五輪大会」, 『中央公論』, 1964, 355쪽.

실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자각시키는 계기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것(올림픽)은 패전에 의해 상처받은 내셔널리즘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했지만, 이는 스포츠에게만 허용된 것이 되어갔다. 애국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알레르기와 경계심은 그 후에도 일본인으로부터 없어지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4년에 한 번 있는 내셔널리즘’-냄비근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인의 감정은, 올림픽 때마다 불타오르고, 대회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아직 패전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던 것이었다.¹⁷

아베는 올림픽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무리 일본을 ‘미’로 경험했다 하더라도, 패전을 경험했던 당시의 어른들의 감각 속에서 애국심이 일본의 미적 표상으로 지속될 수가 없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아베의 진단은 전쟁 체험자들의 생생한 기억을 단순히 ‘알레르기’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말에서 거꾸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애국심’을 보편적인 아름다움으로 확대하는 것을 얼마나 기피하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아베와 비슷한 세대에게 이러한 기성세대의 감각은 그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 감각으로 비춰졌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다. 아베가 도쿄 올림픽을 회상하면서 세대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베가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애국심을 경원시하는 당시의 기성세대들의 보수적 감각이 아니라, 그에 대해 이질감을 느꼈던 전후 탄생한 소년들의 감각이다. 그 소년들이야말로 2000년대 일본사회의 기성세대로 자리 잡은 단카이(團塊) 세대들에 다름 아니다.

17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79~80쪽.

3.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1958년의 ‘미’:

〈올웨이즈 3번가의 석양〉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반지’와 ‘애국심’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보수주의 미적 감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도쿄 올림픽이 아니라, 책의 말미에 영화 〈올웨이즈 3번가의 석양〉(ALWAYS 三丁目の夕日, 이하 3번가의 석양)의 한 장면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 일가에도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나무 냉장고가 전기냉장고로 바뀌고…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차례로 실현되어 간다. 하지만 영화는 중반, 그것과 모순되는 듯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대담하게 묘사해 간다.

3류 소설가 자가와 류노스케가 없는 돈으로 프리포즈 반지를 사려고 하지만 그 돈으로 소년에게 만년필을 사버렸기 때문에, 반지 상자밖에 살 수 없었다. ‘언젠가 사줄 테니까’라고 말하며 빈 상자를 받은 여성 히로미는 상자를 열고, ‘반지를 꺼줘’라고 말한다. 그리고 상자에서 꺼낸 보이지 않는 반지를 약지에 끼고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그녀에게 그것은 티파니나 카르티에 반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반지였다—.

도쿄타워가 전후 부흥과 물질적 풍요로움의 상징이라면, 환상의 반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의 상징이다.¹⁸

고도성장이 막 시작될 무렵인 1958년 도쿄의 서민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3번가의 석양〉은 2005년에 개봉되었는데, ‘격차사회’의 심화와 단카이 세대들의 은퇴라는 사회적 변동과 맞물려 남녀노소에 모두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3번가의 석양〉의 성공은 외조부였던 기시 노부스케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 ‘탈전후 레짐’이라는 정치적 이념 하에 헌법 개정을 추진

18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219~220쪽.

하려고 하는 아베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¹⁹ 왜냐하면 이 영화는 ‘도쿄타워’를 통해 가시적으로 표상되는 근대적 라이프 스타일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소외된 서민들의 삶을 ‘환상의 반지’라는 허구적 매개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림으로써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집권 하의 일본을 통째로 미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에게 이 영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조부인 기시 정권에 대한 재평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베에게 이 영화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3번가의 석양>에 보이는 미학이 기시 정권의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는 데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지는 않았을까. 주지하다시피 기시는 우파가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군대로의 승격에도, 좌파가 요구하는 안보조약 체결 거부에도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이를 포기하는 대신, 소득 증대나 사회보장 등을 통한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확립에 주력했다. 안보투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야구장은 만원사례 아닌가’라고 말한 기시의 발언은 그가 정치적 ‘독립’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대신, ‘생활’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가치를 선택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²⁰ 이는 당시 기시가 좌·우파 모두에게 ‘보수주의자’로 비판을 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성립된 ‘생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 향유하는 생활을 절대 우위에 두는 ‘생활보수주의’가 되어, 역으로 아베의 ‘탈전후레짐’이라는 정치적 이상을 막는 강력한 방해물로 작용하게 된다.²¹ 아베가 2000년대 중반 일본인들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로서의 ‘환상의 반지’가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베는 기시가 포기했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미적 대상으로 보는 대중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를 그가 원하는 ‘애국심’으로

19 임성모, 「전후 일본 보수정치의 식민지 표상: 기시 노부스케와 ‘만주」,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79쪽.

20 임성모, 「전후 일본 보수정치의 식민지 표상: 기시 노부스케와 ‘만주」, 107쪽.

21 岩崎稔外編, 『戦後日本スタディーズ』, 紀伊国屋書店, 2009, 30쪽.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원점이자 한계인 기시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아베는 <3번가의 석양>을 통해서 발견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로서 “환상의 반지(반지)”를, 곧바로 2006년 WBC에 참여해 일본을 우승으로 이끈 일본 야구선수단에 연결한다. 즉, 아베가 고액의 연봉보다는 세계 1위를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말한 이치로의 인터뷰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라는 당시 쿠바 감독의 말을 인용할 때, 그는 “일장기를 달고 세계무대에서 싸우는 것”에 ‘금지’를 느끼는 감각인 ‘애국심’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로서의 “환상의 반지(반지)”와 등가적인 관계에 위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일본 국민들에게 기시 노부스케라는 이름 하에 대변되는 1960년대의 생활보수주의적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길 요청하며 ‘애국심’을 강조하는 아베의 행위는 분명 미시마 유키오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 일본 낭만파의 영향을 받으며 문학적 활동을 개시한 미시마는 1960년부터 생활보수주의 감각을 비판하는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이후 발표한 「우국」, 「영령의 목소리」, 『풍요의 바다』 등의 작품 속에서 쇼와 시대 청년들의 천황을 향한 정치적 정념과 행동을 ‘미야비’(雅び)라고 하는 일본 고유의 미로서 표상함으로써 애국심을 긍정했기 때문이다. 즉, 아베와 미시마는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 감각 속에서 전통적인 ‘미의식’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하는 미의식은 무엇이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

전중과 세대이자 좌파 지식인으로서 일본 낭만파를 통해 일본의 정치와 미의 관련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는 일본에서 미가 차지하는 특수한 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풍토에서 ‘미’가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이며 심지어 월권적(越權的)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적어도 일본 사상사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면 누구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일본인의 생활과 사상에 마치 서구 사회 속의 신의 관념처럼 보편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로 ‘미’였다고 할 수 있다.²²

하시카와는 정치의 기본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에 있어 그 정통성 원리가 미의식의 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서구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정치가 정치로서 의식되기 이전에, 정치 작용이 일상적인 생활의식 차원에서, 그 미의식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우월한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근대 일본 속의 미와 정치의 관련성에 주목한 것은 하시카와만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지식인들은 제국일본의 레짐 속에 미의식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었다. 예를 들면 하시카와에게 영향을 미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는 일본 국학의 시조인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시론 속에서 미적 판단의 기준으로 쓰인 ‘우타고코로’(歌心), 혹은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라는 주정적 미의식은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치적 태도’(unpolitische Haltung)이지만, 근대 일본의 경우에 그것이 역설적으로 “일체의 정치원리를 포용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²³ 부연하자면 근대 일본에서는 미의식이 정치적 이념의 논리적 정합성과 윤리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선행됨으로써, 일단 미화된 정치의식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기능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루야마 그리고 하시카와를 비롯한 전후 지식인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미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전중과 세대인 하시카와는 특히 이런 미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전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극한형태의 가혹함’을 견디게 해주는 ‘전쟁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던 일본 낭만파에 주목했다. 즉, 하시카와는 1930년대 활약했던 야

22 橋川文三, 『日本浪漫派批判序説』, 未来社, 1960/講談社文藝文庫, 1998년, 108쪽.

23 丸山真男, 「近世儒教の發展における徂來學の変質」, 『丸山真男集』第一卷, 岩波書店, 1996, 296쪽.

스다 요주로(保田與重郎)와 같은 심미적 비평가들이 “어떠한 현실도 그것이 ‘어제’가 되고 ‘추억’이 될 때는 아름답다”고 하는 전통적 미적 의식에 어울려 대동아, 태평양전쟁이라는 “현실을 ‘어제’로서, ‘역사’로서 사는 것”을 당시의 청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일종의 전쟁 선동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하시카와에게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문제적인 것은 단순히 ‘미의식’을 정치에 끌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를 마치 영원히 붕괴되지 않는 초월적인 규범인 양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일본 낭만파의 영향력은 전후 급격하게 쇠퇴되었고, 정치의 영역에서 미는 분리되게 된다. 거기에는 앞서 마루야마를 비롯하는 전후 지식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미’를 배제하고, ‘평등’과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입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미시마의 눈에는 정치 속의 미의 배제야말로 제국일본의 특징이라고 비취졌다. 1954년 「신파시즘론」에서 미시마는 동시대의 정치 형태를 크게 ‘기술적 정치’와 ‘세계관적 정치’라는 두 개로 분류한 후, 전자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이래 현재의 의회민주주의에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후자를 마르크스와 히틀러의 사상적 실험을 실제 정치 공간으로 확대한 공산주의와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인위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기술적 정치’는 미가 배제된 ‘일종의 고도의 생활 기술’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현한 ‘세계관적 정치’는 “종교, 도덕, 과학, 예술, 온갖 것을 포괄하고, 그를 위해 일견 문화주의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파시즘’은 당연히 ‘세계관적 정치’에 들어갈 것 같지만, 일본의 경우 실은 반대였다고 미시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전의 일본 우익은 모두 천황주의자다. 그들의 세계는 인공적 체제를 결여하고 있다. 즉 의회민주주의는 기술적 정치 형태이므로 흡정헌법 하에서도 얼마간의 모순을 용인하면서 성립한다. 그러나 파시즘은 인공적 세계관적 정치 형태이므로 실은 자연발생적 천황제와 쉽게 섞일 수 없을 터이다. 나는 전 시 중의 일본 파시즘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언론통제 그 외에 온갖 나치즘화도

포함해서, 기술적 정치의 이론적 궤관이라고 생각한다. 군부독재는 역사상 종종 보인다는 점에서 어떤 신선함도 없고, 통제 경제와 언론 통제는 세계관적 정치의 기술적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²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시마가 일본에는 ‘파시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기술적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시마의 주장은 앞서 본 마루야마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하시카와가 『일본 낭만과 비판서설』을 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이후 양자가 미의 배제와 필요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시마의 관점은 근대 천황제 또한 인위적으로 생긴 질서라는 인식을 결여하고 있고, 공산주의나 파시즘 속의 ‘미’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지만, 마루야마나 하시카와의 견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유효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그것은 아베의 정치 이념 속의 ‘미’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낳는다.

먼저 하시카와의 관점에서 본다면, 2000년대 중반의 현실정치의 어려움을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아베의 정치적 행위는 일본의 ‘지금-여기’를 〈3번가의 석양〉의 배경이 되는 1958년에서 1964년까지의 도쿄의 ‘찬란했던 시절’과 포개놓는다는 점에서 그가 말한 의미에서 일본 낭만과의 행위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아베가 실질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것은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의 ‘영광’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미화된 과거 속에 투영함으로써 해소, 혹은 지연하고자 했던 ‘일본 낭만과적인 정치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하시카와적인 해석에는 아베의 그것을 일본 낭만과적 행위의 반복이라는 해석을 가능토록 만드는 존재, 그러니까 미를 배제하는 정

24 三島由紀夫, 「新ファシズム論」, 『文学の人生論』, 河出新書, 1954/『決定版三島由紀夫全集』(第28巻), 353~354쪽.

치체제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낭만파와 혹은 그것의 재현으로서의 아베의 정치성은 미를 배제하는 ‘기술적인 정치’의 존재와 함께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이러한 ‘기술적 정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기시 노부스케라 할 수 있다. 즉, 만주국 혁신 관료이자 전시 통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시와 전후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던 기시는 모두 정치에 있어 미를 배제하는 ‘기술적 정치’를 일관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미’를 도입하는 아베의 행위는 아이러니하지만 조부 기시의 ‘기술적인 정치’의 한계 속에서 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아베와 미시마는 모두 기시의 ‘기술적 정치’ 속에 갇힌 보수주의 감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대안으로서 정치에 ‘미’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아베의 정치가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가 기시 노부스케의 이념을 동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미를 분리시키고자 한 전후체제에 반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아베와 미시마를 동일선상에 놓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4.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로』 속에서 배제된 1958년의 ‘미’:

1958년 황태자 결혼식의 배제와 아베의 천황관

하지만 미시마의 정치 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베의 정치 미학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세계 속에 ‘미’를 도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배제하기도 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즉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아베가 회상하는 ‘일본이 빛났던 시절’ 속에는 전후 일본의 정치와 미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1959년 4월 10일 열린 황태자 아키히토와 미치코의 결혼식이다.

1958년 11월 27일 혼약이 발표된 이후, 일본에는 평민 출신으로서 황족

과 결혼하는 미치코를 미소라 히바리나 이시하라 유지로와 같은 대중 스타와 나란히 취급하는 이른바 ‘밋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미디어에 의해 황제의 신성성이 대중들의 욕망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1946년 1월 1일에 발표된 쇼와 천황의 ‘인간 선언’을 ‘구체화한 사건’으로 해석되곤 한다.²⁵ 하지만 한편으로 황태자의 결혼식은 ‘인간 선언’에 의해서 상실된 국가 표상으로서의 천황의 미가 복원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전전의 천황은 그 자체로서 일본의 미를 표상하는 존재였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 선언’은 천황 스스로가 더 이상 자신이 ‘미’가 아님을 선언하는 행위로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평민 미치코가 미디어를 경유해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미적 존재로서 승인받음으로써, 그러한 미치코와 결합한 황실 역시 다시 한 번 일본의 미를 표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황태자 결혼식은 마루야마 마사오를 비롯한 전후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패전 이후 일견 엄격하게 분리되었던 미와 정치의 경계가 와해됨과 동시에 강한 자장으로 서로에게 이끌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이 곧 천황이 미를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찍이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황태자의 결혼 의미를, 천황이 일찍이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성성’과 국민이 천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쟁책임’에 대한 단죄의 교환에서 찾은 바 있는데,²⁶ 이제까지 논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는 ‘미’의 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평민 출신 미치코와의 결혼은 천황이 가지고 있었던 ‘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힘을 국민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역으로 그들에 의해서 ‘미’가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3번가의 석양>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2000년대 중반의 일본 국민들의 향수 속에는 자신들이 스스로 일본의 미를 규정하기 시작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25 홍윤표, 「〈황태자의 결혼〉을 통해 본 대중천황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빗속의 분수」(雨のなかの噴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第38輯, 2011, 591쪽.

26 加藤典洋, 「1959年の結婚」, 『群像』, 1988년 9월/『日本風景論』, 講談社文藝文庫, 2000, 85쪽.

수 있다. 기시 정권은 이러한 교환의 중매자이자 테이블 세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베는 어쩌서 『아름다운 나라』 속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회상하고 있지 않는 걸까.

아베의 회상 속에 황태자 결혼식을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의 권력이동이 우익들에 의한 일련의 정치적 테러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로부터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주지하다시피 1961년에는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와 후카자와 시치로(深沢七郎)가 황태자 결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화하는 당시의 대중들의 미의식을 조롱하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에 반발한 우익 소년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 황태자 결혼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를 두고 불거진 대립은 상징천황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와 이를 거부하는 우익이 분화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데, 이는 우파를 끌어안는 보수주의 정치이념을 갖고 있는 아베로서는 환기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것이다.

하지만 아베에게 황태자의 결혼이 부담스러운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전후의 상징천황제의 본질을 매우 구체화적으로 가시화해 버림으로써, 아베가 주장하는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이라는 정치이념의 중요한 문제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서의 전몰자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전전의 천황은 ‘미’ 그 자체임과 동시에 ‘미’를 국민들에게 그것을 배분하거나 승인하는 존재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즉, 천황의 이름하에 수행된 전쟁 등에 참가한 공로자나 희생자는 천황의 이름하에 미적 대상으로써 가시화됨으로써 공동체 속에서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천황이 ‘인간’이 된 전후 일본에서 그들을 ‘미’의 이름하에 구원할 길은 봉쇄되어 버린다. 1959년 황태자의 결혼식은 천황을 다시 미적 대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그와 동시에 전전의 천황이 가지고 있었던 미의 분배를 통한 전몰자들의 가시화라는 정치적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시마는 1966년 발표한 「영령의 목소리」에서 2·26 사건을 일으켰다가 처형된 청년 장교들의 ‘영령’의 목소리를 빌어 전전의 천

황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거센 혼련 중에도 천황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통하는 듯이 느껴졌고, 화약 연기로 뒤덮인 들판의 피안으로부터 언제나 천황의 마음의 한 줄기 빛은 싸우는 우리들 가슴 깊숙이 찌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꿈꿨다. 아아, 저 멀리 아름답고 맑은 별과 우리들 사이에는 그러나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 걸까. 우리들의 더러운 의복과 저 천상의 번쩍거리는 성의 사이에는 얼마나 먼 거리가 있단 말인가. …(중략)… 그러나 만약 ‘그 때’가 와서, 절망적인 거리가 일거에 줄어들어, 저 먼 별이 바로 눈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찬란함에 눈은 멀고 옳드려 할 말을 잃고, 무엇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도 그 지복은 어떠했을까. 죽음을 건 우리들의 사랑의 성취는 어떠했을까. 그 때 재빨리, 위엄 있는 맑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 ‘죽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의 죽음의 기쁨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었을까.²⁷

2·26 사건을 일으킨 청년 장교들과 같이 땀으로 젖은 “더러운” 군인들에게 천황은 “아름답고 맑은 별”과 같이 찬란한 미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와 미의 거리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커서 좁처럼 메워질 수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천황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고 이에 대해서 천황은 그들에게 명예롭게 “죽어라”라는 명령으로 화답할 때, 그 거리는 일거에 해소되어, 비록 비천한 자신의 삶도 미적 대상으로 고양시킬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는다. 미시마는 2·26 사건을 일으킨 청년 장교들의 의도를 이러한 천황에 대한 정념으로 설명하며, 이를 ‘미야비’(雅び)라는 “전통적” 미적 개념의 재귀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미시마의 인식은 ‘미’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어떤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는 것 역시 초월적 존재로서 천황만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인간 선언’ 이후 천황은 스스로

27 三島由紀夫, 『決定版三島由紀夫全集』(第20卷), 479~480쪽.

의 초월성을 포기함에 따라 그 초월성을 믿고 죽은 전몰자들의 죽음 역시 미적인 대상으로 규정되는 길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미시마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미시마는 이제 그저 구천을 떠도는 ‘원한’을 가진 ‘영령’의 목소리로 ‘왜 천황은 인간이 되었는가’를 노래시킴으로써 전몰자들과의 관계의 끈을 저버린 쇼와 천황에 대해서 매우 급진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시마의 정치 미학 속에서 천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아베의 정치 이념 속에서 천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런 면에서 아베는 미시마보다는 기시와 가깝게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천황의 위상 제고 등을 포함한 개헌의 장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던 기시로서는 만주국 혁신관료로서의 노하우를 이용한 국토개발과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법과 국민연금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기시는 천황이 담당했던 미학 정치라는 문제를 개인의 삶의 안전 보장의 문제로 대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기시처럼 실제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아베는 천황이 일본 역사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도 일본국 속의 천황의 역할을 “국가, 국민의 안녕(安寧)을 기도하고, 오곡풍양(五穀豐穰)을 기도하는” 것과 내각 총리대신 등의 임명 및 중의원 해산 등의 명령, 외교관들의 접견 등에서 찾고 있을 뿐, 전몰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 연금의 문제를 중시하면서, 그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이 사람이 85세까지 산다면 지불한 액의 2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5세라면, 딱 여성의 평균 수명이다. 즉, 대부분의 여성은 인생의 황혼기에 대부분 손해를 보게 된다. 참고로 남성의 평균 수명은 78세인데,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지만 그래도 평균수명까지 산 사람은 지불한 액수의 1.3배를 수령할 수 있다. 그야말로 앞서 언급한 ‘조사(早死) 리스크’의 역이다.

보험에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장수에 대비해야만 한다. 즉, ‘장수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다.²⁸

2000년대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할 국민연금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베는 국민연금이란 분명 빨리 죽을 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지만, 장수하면 할수록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라고 해명한다. 이러한 아베의 주장은 취업률 저하에 따른 결혼율과 출산율의 동반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이 없다는 점과, 그의 인식이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국가의 인구가 팽창하던 고도성장기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1960년대의 미시마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장수’를 인간의 생과 국가 설계의 기본 전제로 놓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미시마는 1967년 아마모토 쓰네모토의 『하가쿠레』(葉隠)를 주해한 「하가쿠레 입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는 연명하는 데 모든 전제가 걸려 있는 시대다. 평균수명은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늘어나고, 우리들 앞에는 단조로운 인생 플랜이 그려지고 있다. 청년이 이른바 마이홈주의에 의해 자신의 작은 동지를 발견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는 동안은 아직 괜찮지만, 일단 동지가 발견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은 주판으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과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조용한 퇴직 후의 노후의 생활뿐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복지국가의 배후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협한다.²⁹

일본을 복지국가로 진입시키고자 기시 정권 하에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노후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생활에 안정감을 안겨다주었고, 기시에 이어 등장한 이케다 내각 하에서는 소득 증대와 국립암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걸친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미시마는, 그것이 인간의 삶

28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180쪽.

29 三島由紀夫, 『葉隠れ入門—武士道は生きている』, 光文社, 1967/『決定版三島由紀夫全集』(第34卷), 486쪽.

의 의미를 오직 ‘연명’하는 데 있는 것으로 왜소화시켰다고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할복이나 정사 등을 ‘미’로 간주하는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이기도 했다. 미시마가 ‘무사도’를 찬양하며 스스로 사무라이를 연출하기 시작한 것은 「하가쿠레」가 정의하는 인간, 즉 인간이란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때 자신이 죽을 시점을 발견하는 존재라고 보는 가치관에 공감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미시마의 주장은 당시 일본사회에서 거의 무시당했다. 거기에는 전후 일본인들이 “죽음을 찬양했던” 이른바 전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우치다 류조(内田隆三)가 지적한 바 있듯이 “푸코가 말하는 ‘살게 하는 권력’(생-권력: bio-pouvoir)의 한 형태”가 이 시기 일본의 새로운 정치체제로 기능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³⁰ 즉, 제국일본은 국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과 식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전후 일본국은 일본인들을 오래 살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쇼와 천황이야말로 이러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상징으로서 매우 적확하다. 출생년도가 확인 가능한 천황 중에서 가장 장수했고, 재위 기간 역시 62년으로 가장 길었던 히로히토는 재위 기간 중 천황이 지고 있었던 ‘죽음’= ‘미’라는 독특한 가치가 ‘생’과 ‘안전’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스스로 체현한다. 미시마의 급진적인 행위는 이러한 쇼와 천황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인 생-정치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베의 ‘아름다운 나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을 계승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단절시켰던 전후 고도성장기의 국가권력의 범주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0 内田隆三, 『国土論』, 筑摩書房, 2002, 216쪽.

5.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새로운 나라로』로의 변경이 의미하는 것: 법의 초월에서 새로운 초월적인 법 안으로

천황을 둘러싼 아베와 미시마의 미의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침내 일본국 헌법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귀결된다. 미시마는 1968년 『주오코론』(中央公論)에 발표한 문제적 논문 「문화방위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야비’는 궁중의 문화적 정화이며 그것을 향한 동경이었지만 비상시에는 테러리즘의 형태를 띠었다. 즉, 문화 개념으로서의 천황은 국가 권력과 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에도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만약 국가 권력이나 질서가 국가를 민족에서 분리시키려는 상태에 놓일 때는 ‘국가와 민족의 비분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변혁의 원리로서 문화 개념인 천황이 작용했다.³¹

미시마에게 천황은 마치 로마제국 황제처럼 헌법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때로는 ‘무질서’를 예외로서 인정해 법 집행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 초월자적인 주권자이어야 했고,³² 이러한 존재로서의 천황은 이와 같은 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암살을 비롯한 테러리즘도 전통적 미로서 용인함이 마땅했다. 요컨대 급진주의적 미학의 관점에서 있었던 그는, 천황이 일본국 헌법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는 존재인 이상, 전후 레짐의 탈각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미시마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베 신조의 ‘미학’은, 미학이 가진 급진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극우적이라기보다는 법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관료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전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름다운 나라로』의 내용에 약간의 보론만을 추가한 체 제목을 바꿔 2013년도에 새로 출간한 『새로운 나라로』에서 그의 ‘미’에 대

31 미시마 유키오, 남상욱 옮김, 『미시마 유키오의 문화방위론』, 자음과 모음, 2013, 82쪽.

32 ジョルジョ アガンベン(著), 上村忠男·中村勝己(訳), 『例外状態』, 未来社, 2007, 83~84쪽.

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매우 소박하게 드러날 뿐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예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땀을 흘려 전답을 경작하고, 물을 서로 나누면서 가을이 되면 천황가를 중심으로 오곡풍요(五穀豊饒)를 기원해 온 ‘미즈호의 나라’입니다. 자립자조를 기본으로 불행하게도 누군가가 병으로 쓰러지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것을 돕습니다. 이것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사회보장이며, 일본인의 DNA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베가의 뿌리는 나가토시, 훨씬 옛날에는 유아초입니다. 거기에는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동해(일본해)에 면하고 있어 물을 머금고 있을 때는 하나하나의 계단식 눈에 달이 비추고 멀리에 고기잡이 배의 불빛이 비쳤는데, 그것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³³

천황의 존재를 그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장 정도의 역할로 축소시키고 있는 아베에게 이제 일본의 ‘미’는 개인의 삶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통적 사회보장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과승한 감수성, 이 두 가지로 요약될 뿐이다. 이러한 미의식은 자연을 영토라는 개념으로 대치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을 미국과의 공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한 면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기 충분하다. 즉, 미시마가 미를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려 했다면, 아베는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이념에 미를 덧붙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그가 GHQ에 의해서 기안된 일본국 헌법을 전복시키고, 이에 따른 동북아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법 파괴적인 급진성을 갖고 있는 듯이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베는 천황에 의한 법 정치라는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일본국 헌법 속의 모순을 해소하는 쪽으로 나아갈 뿐이다. 특히 북한에 의한 납북이나 테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무질서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의 안

33 安倍晋三, 『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 完全版』, 文春新書, 전자책 2013. Loc 2590 of 2723.

전'을 빌미로, 개인에 대한 법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할 뿐이다. 최근 통과된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아베가 "되찾고자 하는 일본"은 더 이상 그가 주장하듯이 전후의 역사에서 상실된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법 그 자체의 초월성에 대한 신념하에 전후 일본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본"에 다름 아니다.

의 공공성 인식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주류적 대응은 내향적 생활보수주의로의 소극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향적 생활보수주의의 감각이 일본사회 내 차별과 배제의 소수의 주장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기획에 대해서 특별한 찬반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넷우익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여론: 주요 언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황성빈

투고일자: 2014. 1. 7 | 심사완료일자: 2014. 1. 9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내셔널리즘, 배외주의의 확산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먼저 ‘넷우익’의 현상에 대한 선행 논의를 살펴본 후 일본의 주요 언론이 이 현상 또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했다. 주요 언론이 여전히 여론 공간 형성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인터넷상의 여론이 기존의 여론 공간과 독립적으로 출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 하에 그 입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였다. 분석 결과, 리버럴, 보수 신문 모두 넷우익의 출현과 배외주의 확산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버럴(『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과 보수(『요미우리신문』) 사이에는 양적인 추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시각에서 차이는 없었다. ‘넷우익’의 동향에 대한 주요 언론의 시각은 『아사히신문』이 ‘변명적, 동정적, 위선적’(apologetic, condescending, hypocritical)이라면, 『요미우리신문』은 ‘은폐 감추기’(concealing), 『산케이신문』은 ‘암묵적 심정적 지지’(tacitly sympathetic support)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히려 현실적 보수(『요미우리신문』)와 심정적 보수(『산케이신문』)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주요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은 ‘넷우익’의 승인 욕구를 더 자극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넷우익’은 기존 언론의 주변 국가,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한 선정주의적, 신보수주의적 심정에 충실한 보도가 낡은 논리적 껍질이기도 하다.

주제어: 넷우익, 반한류, 배외주의, 여론, 일본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 남상욱

투고일자: 2013. 12. 2 | 심사완료일자: 2013. 12. 13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아베 신조의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를, 미시마 유키오의 정치 미학(political esthetics)과의 대비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최근 일본의 보수주의 속의 미적 감각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아베 신조의 ‘탈전후 레짐’이라는 정치적 이념은 그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그것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답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아베가 돈이라는 가치적인 가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애국심을 ‘미’로 간주하는 행위를 통해 전후 일본 정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정치에 미를 도입함으로써, 기시의 생활만을 증시하는 ‘기술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려는 점을 문제화한다. 아베의 행위가 전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전후 일본에서 정치 미학의 필요성을 외쳤던 미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전물자들에게 미를 부여해 공동체 속에 그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은 전전의 천황만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었는데, 아베는 이러한 천황의 정치적 기능을 부활하기는커녕, 천황을 생의 안전을 기원하는 존재로

과악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에게 미는 그가 급진적인 동시에 보수적이라는 모순을 내재한 체로 전후의 법적 질서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각이 없이 '생의 안전'을 빌미로 개인에 대한 법적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의 초월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아베는 법의 정지를 위해 미에 기대했던 미시마보다 더욱 위험할 것이다.

주제어: 극우, 보수, 정치 미학, 아베 신조, 미시마 유키오, 법 폭력

현대 일본 우익 대중주의의 알고리즘: 고바야시 요시노리 『전쟁론』의 언설과 이미지 | 한정선

투고일자: 2013. 11. 19 | 심사완료일자: 2013.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익 대중주의의 미학을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만화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우익 사상을 재구성 및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바야시는 『신오만주의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역사 문제를 '대동아전쟁'으로 호명하면서 기억하는 작업을 했다. 『전쟁론』으로 귀결된 이 작업은 일본 내에서 6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작업을 언설과 이미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할 때, 그의 언설 전략은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이라는 세 가지 특질을 보이고 있으며, 언설의 가시화 전략은 기형화, 기호화, 그리고 평면화로 압축될 수 있다.

주제어: 만화,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 국가귀속성, 기형화, 기호화, 평면화

전후 일본의 방위 구상: 일본 우익 세력의 자위대 구상과 그 실천 과정 | 서민교

투고일자: 2013. 12. 8 | 심사완료일자: 2013. 12. 20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 즉 자위대의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1948년에서 1950년대에 걸쳐 일본의 재군비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실천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1950년대에 본격화한 일본 재군비 과정에서 초기에는 배제되었던 구 육·해군의 군인 관료들의 기용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GHQ 역사과의 '핫토리'그룹을 비롯한 구 육군 출신의 대미협력기관 및 요시다 수상의 군사고문들의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구 해군의 경우는 육군에 비해서 그 해체의 정도가 미약해 패전 후 공식적으로는 육·해군이 해체되었지만, 해군의 경우 소해(掃海)부대를 제외하고 해체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48년에 설치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구 해군의 인맥은 육군에 비해 일원적으로 관리되는 창구가 존재했고, 구 해군 군인 중에 요시다 수상과의 인연이 깊은 군인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Y위원회'의 존재에 주목했던 까닭이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1954년 3월에 MSA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소련 전략을 위해 서방 제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원조국은 군사력을 강화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인 재군비를 약속했다. 이렇게 탄생한 자위대는 '이름 없는 군대', '군대가 아닌 군대'로서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기능해 가게 되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동맹국가인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방어해야 한

Xenophobic Voices in Japan: A Case Study of Anti-Korean Demonstrations by *Nettouyoku* and *Zaitokukai* | HWANG Seong Bin

Thousands of protesters in Tokyo and other major cities rallied against the use of nuclear power on June 11, 2011, three months after a devastating tsunami set off a nuclear crisis. The demonstration was remarkable not just because of its size, but because of the way in which it was organized. It was actually called upon by a famous blogger without organized support, thus many people in the crowd were protesting for the first time. Meanwhile, in that summer, there was another, a bit peculiar set of protesting rallies against Fuji TV airing “too many Korean dramas”. When a Japanese actor Takaoka Sousuke tweeted anti-Korean wave sentiments in 2011, his message had stirred up many attentions, especially on the biggest Internet bulletin “2 channel” and other online video distribution sites, which eventually led to several protest rallies. So-called *Nettouyoku*, a small but very vocal on the Internet that mostly have strong xenophobic views, have come out to the area such as Shin-Okubo, a mecca for fans of Korean Culture, in full support of the *Zaitokukai* (“Citizens Against Special Privilege of Zainichi-Korean residents in Japan”)

I have examined how Japanese media have framed these protesting rallies by *Nettouyoku* with a special interest and how the protesting voices have been mediated by the media. The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both liberal and conservative newspapers have been indifferent to the rising of ultra-nationalism and xenophobic voices on the Internet.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iberals (*Asahi* and *Mainichi*) and the Conservative (*Yomiuri*) in terms of how they framed those group’s activities. Y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ervatives, namely *Yomiuri* and *Sankei*, was more remarkable and uniqu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recent rise of ‘Internet nationalism’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 in Japan might be an ‘unwanted child’, but it is also a logical consequence of sensational coverage of Japanese media regarding the conflict issues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neighboring countries.

• **Keywords:** Internet nationalism, Xenophobia, public opinion, Japan, Discourse Analysis

Beauty and Nation in Abe Shinzo’s *Toward a Beautiful Country*: The Aesthetics of Postwar Conservatism through the Lens of Mishima Yukio | NAM Sang Wook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of “beauty” in Abe Shinzo’s *Toward a Beautiful Country: My Vision for Japan* by comparing with Mishima Yukio’s political aesthetic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aesthetics in recent Japanese conservatism.

It has been understood that Abe’s doctrine of “post-postwar regime” is merely his way of idealizing or emulating his grandfather, Kishi Nobusuke.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blematizes Abe’s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s of Kishi’s technical politics by bringing the controversial concept of “beauty” into the field of politics. His attempt to accomplish this

through “patriotism,” an emotion which cannot be converted into visible value such as “beauty,” is problematic. This is why Abe appears to have radical understanding of postwar democracy, yet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be understood as a very conservative viewpoint, in light of Mishima Yukio who also advocated the necessity of political aesthetics.

Though it was an important political role of the pre-war Emperor (Ten-no) to bestow beauty on the war dead, Abe, deviating from the ol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role of the Emperor, only acknowledges Emperor as a figure who prays for the safety of life.

After all, this shows that Abe’s concept of “beauty” falls into victim of the postwar legal order which paradoxically internalized the conflicting aspects of radicalism and conservatism. Lacking any awareness on the matter, Abe revised the law in order to intensify the legal enforcement under a false pretense of “the safety of life,” which led to further transcendence of the law. In this sense, Abe is more threatening than Mishima, who placed his hope on the beauty in order to suspend the enforcement of the law.

• **Keywords:** Far-right, conservatism, political aesthetics, Abe Shinzo, Mishima Yukio, Legal violence

Kobayashi Yoshinori and Caricaturing Japanese Populism | HAN Jung Sun

This paper explores the strategies and workings of Japanese populism by focusing on the caricatures of Kobayashi Yoshinori. Kobayashi is a well-known cartoonist and his works have been influential in shaping popular opinions on various issues of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In this paper, I limit the scope of analysis on the piece entitled Sensōron, since this is the piece that has been widely received by people in and outside of Japan and has made him a popular social pundit. In analyzing Kobayashi’s strategies of narrating “history issues” and of visualizing such narratives, I identify three strategies respectively for the narrative and the visualization. As for the narrative strategies, they are 1) anti-establishment, 2) common-sense centrism, and 3) nation centrism. As for the visualization strategies, they are 1) deformation, 2) symbolization, and 3) complanation.

• **Keywords:** Caricature, Anti-establishment, Common sense, Nation, Deformation, Symbolization, Complanation

The Defense Framework in Postwar Japan: The Design and Practical Procedures of the SDF by the Japanese Right-Wings | SEO Min Gyo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rearmament in postwar Japan from 1948 to 1950s during which the Self-Defense Force was established, and tries to understand how Japan’s rearmament was designed and what characterized its practical procedures.

As the rearmament process became fully in progress in the 1950s, the recruitment of the military officials of the Imperial Army, the idea which was originally rejected, became inevitable. In this sense,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ooperative